

캠프X사회적경제 돌아보기 5강 강의록

강의 주제		캠프 2 사회연대경제 사례연구	
일 자	2023. 07. 07(금)	강사	좌장: 엄은희(지리학 박사, (사)캠프 이사) 강의: 조부영 ((사)캠프 필리핀 지부장)
시 간	19:00 - 21:00 (2시간)		
강의 내용	<p>I . 캠프의 2기 사회연대경제 사업 모델 (조부영 지부장)</p> <p>1. 사업 배경</p> <p>1) 건강한 먹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장 시설의 부족 : 저장을 위해 튀기거나 짠 음식 섭취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선택적 식사 : 채소 대신 고기 - 건강한 먹거리의 접근성 취약 <p>→ 주민들의 건강 문제 발생 (당뇨, 고혈압, 비만 등)</p> <p>* 1기 사업모델로 진행되었던 보건사업의 경우, 치료가 아닌 '예방'에 집중했음. 예방적 차원으로 주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운동을 했지만, 위와 같은 한계가 있는 주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안하는 폭력적인 접근법에 대한 고민</p> <p>2) 개발협력사업의 자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 지원사업의 어려움 : 사업기간의 불안정성 - 많은 행정업무 : 모니터링 및 평가 등 - 지원기관 요청에 의한 사업 변경 및 주민조직의 추진방향과 사업 시기 간 충돌 <p>3) 시장의 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 교민 시장 : 사업 시작 당시 10만(명) -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높은 수요 - 한국에서 수행되는 동일한 친환경 양계 사업을 기반으로 한 시장 가능성 확인 <p>2. 농업 사회연대경제 사업의 시작</p> <p>1) 친환경 양계 사업과 사업지역 확장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타워빌 지역에서 친환경 양계를 시작하였고 쌀, 옥수수, 모링가, 천연 발효물과 같은 자연 재료들을 혼합한 사료로 병아리를 사육함. - 친환경 달걀을 처음 시장에 판매했을 때, 반응과 수요가 높아졌고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쌀, 옥수수와 같은 농산물을 공급받기 위한 방법으로 농업지역으로 양계를 확장하게 되었음. <p>→ 필리핀 딸락주 산호세시</p>		

2) 사업지역(필리핀 팔락주 산호세시)의 문제점

① 농산품 부가가치 저하

- 동일품종을 동일시기에 수확

: 산호세시의 전체 80% 이상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 품종(쌀, 옥수수 등)을 생산

- 저장 및 건조시설의 부족

: 적합한 건조 시설이 없는 주민들은 길거리나 도로에 쌀을 펼쳐 건조

② 제한된 시장 접근성

- 지역 내 내수시장 한계
- 원거리 유통 인프라의 부족

③ 농촌 고령화

-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업 비즈니스의 어려움

→ 필리핀의 Region3 중에서도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역

II.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네이처링크(NatureLink) (조부영 지부장)

1. 생산-가공-유통-사회적 환원의 농업가치사슬

1) 생산 : 친환경 농업 교육 및 지속가능한 농업활동 지원

- 필리핀의 유기농 시장이 확장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활동을 통해 좋은 농산품을 생산한다면 이 자체로 가치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 많은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화학비료를 사용하여 대규모로 농업을 하고 있었고, 오염된 토양에서 더 이상 생산이 불가능해진 농민들이 땅을 팔게 되면서 현재 60%이상의 농민들이 소작농이 되는 문제점

2) 가공 : 농산품 건조 인프라구축, 도정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쌀은 건조와 도정을 통해, 콩과 버섯은 각각 콩물과 두부, 버섯크래커 등으로 가공 과정을 거쳐 상품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

3) 유통 : 냉장유통채널 확보,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4) 기대 성과

- 친환경 농업활동과 지역 농민의 소득증대
-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 수익환원 사회서비스 제공

2. 지역 농민 조직화

1기 사업모델과 동일하게 조직화 활동을 적용했으나, 산호세시 내에서도 각기 다른 조직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크게 4개의 그룹으로 지역별 사회적경제 조직 형성

- 1) 지역 농민 협동조합
 - 농업부 지원의 통로
 - 협동조합(공동 활동)에 대한 인식 형성과 리더십 구축
 - 관습적으로 활동하거나 일부 갈등 존재
 -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지역의 협동조합을 강화
- 2) 소수민족 마을
 - 강한 리더십과 조직
 - 각 부족별 상이한 언어로 인해 소통의 어려움과 지역적 고립의 한계
- 3) 지역 여성 농민
 - 일자리에 대한 의지와 수요 존재
 - 특정 농기에만 바쁜 일정, 이로 인한 사회활동 부족
- 4) 청소년 - 고등학교
 - 학교의 적극적 지원과 교육 커리큘럼과의 연계
 - 지속가능한 농업활동 기반
 - 졸업 이후, 많은 학생들이 도심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떠나는 현실

3. 네이처링크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상생 관계

사회적기업 네이처링크	지역 협동조합(사회경제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협동조합의 성장, 역량강화 지원 - 농민, 농민협동조합의 생산품 가공/유통 연계 - 영리법인으로서 판매 자격의 획득 - 수익활동을 통한 지역 사회공헌(환원) - 다양한 네트워크/ 연대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농민/농가 역량강화 및 조직화 - 사회적기업에 건강한 먹거리 공급 - 친환경 농업방법 적용을 통한 환경적 영향 - 지역 브랜드 구축을 통한 영향력 강화 - 지방정부/농업부와의 네트워크 연계
기업 활동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및 사회적 임팩트 창출	지역 내 주민주도형 사회경제조직으로서의 역할

4. 캠프의 사회·연대·경제 성과

1) 사회적 성과

- 농민들의 경우, 캠프가 기존보다 30%이상의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하여 더 많은 수익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2) 연대적 성과

- 사회적기업과 지역 협동조합의 연대
 - 네이처링크와 필리핀 내 다양한 사회적기업 및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

- 지역 협동조합과 필리핀 농업부, 지역 내 다른 농민들과의 연대
 → 다양한 연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지대 구축. 한 조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조직이 함께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면서 더 안정적인 사회연대경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대적 성과”

3) 경제적 성과

- 손익 분기점을 달성하여 사업 운영 중
 - 함께하는 스태프들이 잘 생활할 수 있고, 농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나눔이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경제적 자립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

5. 캠프 2기 사회연대경제 모델의 특징

1) 현지화

- 많은 NGO 혹은 외국 단체가 현지에 들어와 그들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음.
 - 캠프는 지역에서 수요를 발견하고, 현장에 집중하여 가능한 자원들을 모아 사업을 구성함. 이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현장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짐

2) 지역의 수요

- 지역에서 필요한 수요뿐만 아니라, 시장의 수요 일치
 - 간수를 쓰지 않고 화학재료로 응고시켜 만드는 현지의 두부와 중국식의 두부가 부담스러웠던 한국인들에게 한국식 두부에 대한 수요 존재
 - 생산처와 판매처의 거리로 유통의 어려움과 높은 비용으로 냉장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현지 상황을 반영한 유기농 달걀 판매

3) 법적 기반

- 직원들이 법적 보호를 받고, 안정적으로 현지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 지원

4) 주민들과의 연대

- 농민들이 흔들리지 않고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좋은 관계와 연대체 구축

6. 캠프 사회연대경제 모델 1기와 2기의 구분

	사회연대경제 1기	사회연대경제 2기
접근방법/ 주요목표	-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주민주도형의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운영	- 경제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캠프의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 및 운영
주요 자원	- 코이카를 비롯한 다양한 그랜트 사업의 지원	-코이카의 그랜트 사업 및 국내외 글로벌펀드 연계 노력 - 경제사업 수익의 순환을 통한 자원의 확보
조직의	- 주민주도형 개별 사회경제조직	영리활동에 기반을 둔 사회적기업의

형태	(주민조직에서 발전한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설립 (지역 내 사회경제조직과의 연대와 협력)
출구전략	성숙한(자립가능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독립 (비영리법인과의 파트너관계 유지)	사회적기업 확장 및 강화 (비영리법인/지역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역할 분담)

III. 필리핀 사회연대경제의 흐름 (업은희 박사)

1. 필리핀 농업 산업 현황

- 필리핀의 16세 이상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 중, 농업(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 산업에서 8.9%
- 코코넛 오일, 바나나, 파인애플 등을 네덜란드, 일본에 수출
- 가공식품 및 육류(사료 포함)의 미국 수입량 증대
- 필리핀국립대학교(University of the Philippines)의 농업대학교에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조직이 있을 정도로 '쌀'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
→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섭취해야 할 쌀은 부족하게 생산되고, 수출 상품작물들은 대기업에서 지배하고 있는 문제점 발생

2. 어려움을 기회로 삼은 대안적 노력들(필리핀의 도농교류)

1) 풀뿌리의 움직임 - SHERREZA, Cherrys Abrigo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제로웨이스트 상점, 비건 카페 및 레스토랑, 유기농 제품 판매 매장들의 성장
- 'Community Support Agriculture'의 개념으로 전국의 건강한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민들을 만나 네트워킹 구축 및 확대

2) 정부(중앙-지방)의 움직임

① 4P(Plant, Plant, Plant Program)

- 필리핀 농업부를 중심으로 한 유기농 생산지 기획, 상품 개발 등 추진
- 도시 곳곳에 지역별 특산품 매장을 운영하여 지역별 농산품 및 공예품을 판매하고 정부기관이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② 이동식 먹거리 시장

- 팬데믹 기간 중, 마닐라의 Pasig 지역의 시장이 농촌 지역의 농산물을 대량 구매하고, 트럭을 통해 Pasig 지역 내 이동식 먹거리 시장 운영

3) 한국계 개발NGO 캠프

- 코로나로 인한 봉쇄정책으로 이동이 불가능했음에도 먹거리 운송이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었음
- 이를 통해 건강한 농산품들을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가정마다 배송

	<p>IV 한국의 사회연대경제 발전 흐름 (엄은희 박사)</p> <p>1. 한국의 사회연대경제 발전 흐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사회연대경제 모습은 전형적인 협동조합의 형태 - 해방 이후 농촌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조직하던 것이 1990년대 이후 나타남 - 농촌과 도시가 건강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생활협동조합의 모습 - IMF 이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자활이 강조되며 '사회적경제'의 개념 확대 -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 대기업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경제가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순환되는 분위기 형성 <p>예) 지방정부의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특정 물건이 필요할 시 일정 비율을 지역 내의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물건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에 '사회연대경제' 트랙 신설
<p>질의응답</p>	<p>1. 2회의 강좌에서 사회연대경제가 공적 영역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고, 사회연대경제를 시작할 때 대기업에 흡수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틈새를 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p> <p>1) 엄은희(지리학 박사, (사)캠프 이사)</p> <p>사회연대경제에서 중요한 점은 민간의 자율성입니다. 몇몇 협동조합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도 합니다. 정부에 포섭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강의에서처럼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중앙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지역경제의 토대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자각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방정부가 공공조달이라는 방식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판로가 되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만들어가는 지방정부의 조례들이 사회연대경제와 공적 영역을 만들어가는 현재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p> <p>2) 김중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캠프 이사장)</p> <p>캠프를 통해 보면, 캠프는 코이카의 지원을 받지만 사업비를 통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많은 단체나 외부의 방문자들과 회비, 사회적기업의 운영을 통한 수익으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p> <p>사회연대경제는 민간의 활동입니다. 협동조합 기본 원칙 7원칙 중 4조가 '자율과 독립'의 원칙입니다. 1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자발적으로 개방적인 협동조합)이고, 3조는 공동의 자금과 시간과 같은 자원을 내는 '경제적 자유(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입니다. 경제적 여건과 사람이 모였다면 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제 2조 '민주적 거버넌스(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입니다. 5조는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6조는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조합과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협력하는 것(협동조합 간의 협동), 7조는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우리 조직도 함께 성장하자는 것(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입니다. 이렇게 다른 조직</p>

과 지역사회와 연대하며 성장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을 경우 결사하겠다는 의미가 4조 '자율과 독립'입니다.

지난 수백 년간 협동조합의 역사 속에서 정부가 개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이 때문에 조합이 잘 운영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또한 협동조합이 많이 구성되어있다고 말씀해주셨지만, 정부 기관이 개입하게 되면서 조합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활동하게 되고 본질을 잃게 됩니다. 사회연대경제는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과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에 기본이 있습니다.

언급한 UN의 결의 내용은 UN과 ILO에서 사회연대경제에 대해 법적 및 정책적 형태 정비와, 국제기구들이 사회연대경제 지원 방안을 고려할 것과, UN의 각 산하조직들이 앞으로의 사회연대경제 발전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연대경제의 큰 장점은 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사회연대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자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사회구성원 스스로 삶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캠프와 같은 조직들이 사회연대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로 각광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2. 사회연대경제 사업을 진행하는 NGO와 활동가들이 주체성을 지키면서도 자립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이것이 태도의 문제인지, 역량의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파견간사의 시각에서: 박주연 ((사) 캠프 간사)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중요한 것은 사회연대경제를 하고자 한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량에 대해서는 흔히 기술적 역량을 생각하지만, 스스로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것에서 기술적인 역량도 함께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은 국내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상황도 많고,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잘 정해야하며, 무엇보다 사업에 대한 이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역량을 많이 쌓았느냐, 얼마나 일을 잘 하느냐보다 우선적으로 본인의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야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연대경제의 본질인 문제를 스스로의 힘과 사회연대의 힘으로 해결하고자하는 사람인지 고민하고 행동해야 주민들의 자립과 함께 나의 자립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